

낙농육우농가의 영원한 대변지로 남아주기를...

오정곤
본회경남도지회장



낙농인의 대변지 「월간 낙농육우」가 창간 25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낙농인의 길잡이로 역할을 다해 왔듯이 앞으로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낙농인의 대변지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낙농육우가 처해진 입장을 보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BSE 발병국인 미국에서 6월말경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는 것은 낙농가의 현실과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굴욕적인 협상이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 낙농인 들은 이 참담한 현실을 묵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내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를 더욱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유업체가 대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에서 시작한 불공정한 우유 끼워 팔기는 영세 유업체의 도산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도 실제 낙농가들이 제값을 받고 팔지 못하는 우유를 마진이 많은 상품처럼 생각을 하고 끼워 팔어도 유업체에선 손해를 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유의 가치를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낙농인들의 입장을 헤아려주지 못하는 현실들이 우리 낙농인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낙농인들의 단합된 모습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축산업등록제 취지는 좋습니다만 사실 열악한 우리나라 축산업을 진퇴 양난케 합니다. 전국 양분총량제, 악취방지법, 축산폐수, 이 모든 일이 열악한 우리축산의 현실이고, 전국단일 쿼터제 이 또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남는 30만톤을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 준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욱더 우유에 대한 혼란이 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낙농도 5월 1일부터는 의무낙농자조금을 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낙농가들을 지키고, 도울수 있는 의무낙농자조금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우유 홍보와 대낙농가 홍보, 우유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각인 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우리 우유가 수입 분유보다 월등하게 좋다는 것을 널리 알려 좀더 나은 낙농을 유지할 수 있게 될 날을 기대해봅니다.

사실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 낙농인들의 앞날은 너무나도 비관적으로 보기 쉽습니다. 낙농인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관심과 참여가 최선일 입니다. 앞으로도 낙농인들을 한힘으로 뭉쳐주고 동반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원한 대변자로 더욱더 성숙한 낙농육우협회가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낙농을 걱정해주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